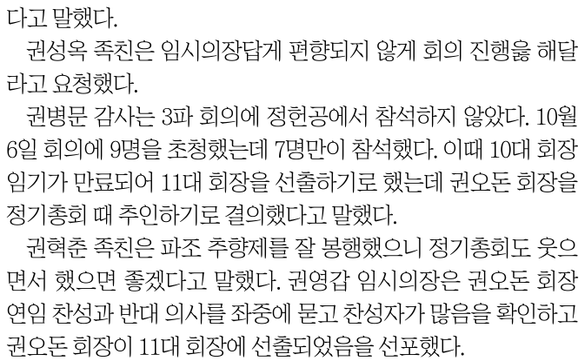
추밀공파 파조 추향제 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

제11대 권오돈 회장 선출

추밀공파(회장 권오돈) 파조 추향제가 10월 18일(일) 10시 30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해마루촌(동파리) 회관에서 봉행되었다. 마침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어쩔 수 없이 파조 단소에서 제향을 드리지 못하고 해마루촌 회관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해마루촌 관계자는 마을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DMZ 해마루촌은 6.25이후 장단군 고향 실향민 1세대 5,000여 명의 한을 달래주고 원거리에서 출입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 724가구 2000여명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887 일원에 조성한 수복마을이다. 2001년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을 비롯하여 권정택 정헌공 종중 회장, 권용기 대전종친회장, 권병후 수원종친회장, 권병돈 정간공 종중 회장, 권오협 문충공 회장, 권태수 문경공 회장, 권용호 매헌공 종중 회장, 권순봉 익평공 회장, 권용학 오헌공 종중 회장, 권인순 탄옹공 종중 이사장, 권선출, 권순호 상임위원, 권용주 매헌 공 종중 고문, 권태관 매헌공 종중 전 회장, 권기준 문경공 종손, 권태순 사평공 종손, 권병문 창화공 종중 총무, 권순구 전 원주종친회장, 권길행 오헌공 종중 사무국장, 권오달 대종회 편집위원 등 150여 명이 참제했다. 서울에서 대형버스 두 대로 참석했고, 충주와 음성에서는 26명이 참제했고 오헌공 종중에서는 권용학 회장 등 23명이 참제했으며 용인 포곡에서는 10여 명이 참제하여 행사장이 북적거렸다.

추밀공 향사에는 초헌관 권영갑(추밀공파 감사), 아헌관 권혁주, 종헌관 권순봉(익평공 회장), 집례 권오상, 대축 권정택(정헌공 회장) 등으로 분장하였다.

총헌공 제향에는 초헌관 권오찬(안양공 종중 회장), 아헌관 권병길(오헌공 종중 감사), 종헌관 권공범, 대축 권영부 등으로 분정하였다.

권영주 후손은 음성에서 올라왔는데 그동안 온다 온다 말만하다 이번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해서 앞으로는 빠짐없이 꼭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포곡에서 참석한 권혜영, 권동신 족친은 안동권문의 딸로서 참석하게 되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추향제를 마치고 회원들은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개회,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 파조 추밀공에 대한 망배, 회장 인사, 주요 경과보고, 헌성금 입금현황 보고, 회장 및 감사 선출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오돈 회장은 인사말에서 반갑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고맙다. 가실 때도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고 내년에도 또 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영갑 전 수원종친회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임시의장은 오늘 11대 회장을 선출하는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지사항으로 2026년 10월 6일 11시에 3파 회장 확대회의를 개최했는데 3파 회장 회의에서, 감사는 유임하고 권오돈 회장은 비록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회관 건립 문제를 끝내고 명예롭게 퇴진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권정택 정헌공 회장은 3년 전에 정헌공 종중으로 넘기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이에 권경일 처장은 3년 전 추향제 때 권오돈 회장이 그동안 회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가 그때 정식으로 추대되어 회장에 취임했다. 정헌공에서 한번 해야겠다 이야기한 적 있다고 말했다.

권성옥 족친은 임시의장답게 편향되지 않게 회의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병문 감사는 3파 회의에 정헌공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10월 6일 회의에 9명을 초청했는데 7명만이 참석했다. 이때 10대 회장 임기가 만료되어 11대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권오돈 회장을 정기총회 때 추인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권혁춘 족친은 파조 추향제를 잘 봉행했으니 정기총회도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영갑 임시의장은 권오돈 회장 연임 찬성과 반대 의사를 좌중에 묻고 찬성자가 많음을 확인하고 권오돈 회장이 11대 회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했다.

회원들은 회의를 마치고 주최측이 준비한 점심을 먹고 귀가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무심해야 이깁니다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는 지혜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世 복야공파)



마음을 너무 많이 쓴 대가

나이가 쉰을 넘고 예순을 바라보게 되면 묘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밤늦게 홀로 앉아 있거나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을 때, 문득 가슴 한구석이 시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젊은 날 영원할 줄 알았던 관계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믿었던 이에게 입은 상처만 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다시 마음을 열고, 또다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에서 매번 상처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형제에게도 늘 먼저 마음을 주고 챙겼지만 돌아온 것은 무심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깊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38년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신중년을 만났습니다. 상처받은 분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먼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덕이 때로는 나를 가장 먼저 소진시켰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그 마음이 통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늘 그렇던가요. 정성을 들인 만큼 상대가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상처를 줄 때, 그 낙차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크게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길은 크게 행복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자식이 알아줄 거라,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던 기대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마음의 의자를 한 칸 뒤로 빼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은 매몰차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울타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거리가 곧 평온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자가 주도권을 쥡니다

가만히 있는 나를 기어이 건드리며 속을 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이들에게 발끈하는 순간, 긁은 사람은 멀쩡하고 나만 예민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편도체 납치라 부릅니다. 누가 자극할 때 이성을 거치지 않고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몇 초를 견디는 사람이 주도권을 쥡니다.

불필요한 자극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내 귀한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늘 보았습니다. 감정을 앞세운 사람은 지고, 침묵으로 기다린 사람이 이겼습니다. 신중년의 내공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하지 않을 만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미동도 없는 고요함, 그것이 가장 강력한 품격입니다.

인연의 무게를 내려놓는 용기

외로움이 두려워 억지로 나가는 모임, 정이 아까워 차마 끊지 못하는 관계들이 삶을 갉아먹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한 번 돌아선 인연은 다시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소진되는 것은 결국 나입니다.

끝날 관계를 너무 오래 붙들었다는 것이 신중년의 공통된 후회입니다. 미움을 품고 끊으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계속 살지만, 조용히 손을 펴서 놓아주면 그 자리에 온전한 내가 들어설 빈자리가 생깁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를 되찾는 시작입니다.

맺음말 — 무심함이 건네는 가장 강력한 자유

신중년의 무심은 외톨이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와 시선이라는 변덕스러운 바람에 흔들리던 날들에서 벗어나 온전한 진짜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혼자 마시는 새벽 커피 한 잔, 아무 방해 없이 읽는 책 한 페이지의 고요함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깨닫는 순간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됩니다.

지족자부(知足者富).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내 삶에서 족함을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지금껏 타인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인생은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만 마음을 주며 우아하고 풍요롭게 내 삶을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무심이 건네는 가장 강력한 승리입니다.

나답게, 너답게, 우리답게, 정답게, 아름답게, 동반성장합시다!

2026 병오년 안동권씨 추계제례위원회 회의 개최

2026 병오년(丙午年) 추계제례위원회(위원장 권혁창) 회의가 10월 9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기천로 권씨회관 내 대종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 봉행할 시조 및 아시조의 추향에 따른 헌관, 축관, 집례, 재유사 등을 확정 짓기 위해서 모였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별유사 등 총 인원 19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모임에는 권정창, 권경웅 두 고문이 참석하였으며 권혁창 위원장은 유고(有故)가 있어서 참석 못하고 부득이 권용주 부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맡았다.

권오익 간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시조묘소 망배, 상읍례를 한 후 본격적으로 토의에 들어갔다. 다가오는 11월 추향에는 태사공의 도유사는 권오진(부정공파), 헌관 권택호(복야공파), 권상규(부정공파), 축관 권기헌(복야공파)이며 낭중공의 도유사는 권종만(복야공파), 헌관 권오균(부정공파), 권영탁(복야공파), 축관 권위택(별장공파)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들은 각 파종회의 추천을 받아 올라온 사람들이다. 또 집필자와 집례 선정하였는데 시조의 집필자와 집례는 권태은(좌윤공파)이고 아시조의 집필자는 권태혁(검교공파), 집례는 권중덕(시중공파)으로 각각 선정하였다. 재유사는 각 파종회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권오익 간사는 오는 11월 추향 때는 현재 능동재사 보수공사로 주변에 건축자재 등이 많이 쌓여있어서 혼잡하기 그지없으며 주차장도 건축자재 등으로 협소해서 각종 차들이 주차하기 힘들지만 참아줄 것을 부탁했다. 권경웅 고문은 분정집필 때 사진사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혼란을 주고 있는데 안동권씨종보 기자 이외는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1시간 30분 걸친 회의가 끝나자 권오익 간사는 한일정상회담 공식건배주인 고려 건국주 태사주 안동소주 2병을 참석자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으며 안동시 서경지 5길 41에 위치하고 있는 '태화동 돈가스' 집으로 이동, 돈가스로 점심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2026 안동권씨능우회 10월 격월 회의 개최

안동권씨능우회(陵優會: 회장 권오갑) 주최 "2026 능우회 10월 격월 회의"가 10월 13일 저녁 6시 안동시 태사길 71(옥정동) '안동회관'에서 능우회 정원 35명 가운데 22명이 참석, 개최하였다. 안동지방은 가을이지만 최근 낮 기온이 여름 기온 못지않게 더위를 느낄 정도이다.

권중익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오갑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2월 총회 때는 회원 가운데 나이가 만 80세 이상 넘으면 년 회비를 절반으로 줄여 받도록 회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곧 이어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국장은 "오는 11월 19일 시조 태사공 추향제가 능동재사에서 봉행되는데 능우회원은 많이 참석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가 끝나자 회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僕射公派祖(諱:守洪) 秋享 案內

병오년 복야공파 파조부군 추향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파친 여러분들은 많이 참제하셔서 파조님의 유업을 되새기며, 파친 상호간 우의를 돈독하게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2026년 11월 10일(음력10月2日) 화요일 10:00
♣장 소: 안동시 서후면 교리 201 송파재사(松野壇所)
♣교 통: 시내버스 안동터미날→도청,풍산방면(터미날에서 두번째 승강장 하차)
택시는→3Km(서후면 교리향교길 31. 송파재사)
♣연락처: 안동시 감나무길 11 (파종회관) ☎(054)855-6989
부회장:010-3504-2083(권오익) / 사무국장:010-9900-5317(권석순)

2026年 11月 1日

安東權氏僕射公派宗會長 權 寧 祥